

# ‘광주의 모태’ 광주천의 역사와 기억

광주역사민속박물관, 24~8월 29일  
기획전 ‘광주천: 대추여울의 시간’  
생활사 관련자료 80여점 전시

“물을 빼고 역사를 쓴다는 것은 역사의 상당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역사는 그렇게 메마른 얘기가 아니다.”

세계적인 생태학자 도널드 웨스터의 말이다. 그의 말은 강과 하천, 바다 등 물길은 곧 사람의 역사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역사의 물줄기는 파내면 파낼수록 풍성하고 그것의 ‘젓물’은 실질적인 물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천은 광주 역사의 모태다. 1919년 광주 최초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행진, 1980년 민주주의 항거 등이 모두 광주천을 배경으로 펼쳐졌다. 비단 항거와 정의의 목소리만 울려 퍼진 것은 아니다. 광주천은 서정적이며 낭만이 깃든 물길이었다.

광주천의 오래된 이름 가운데 ‘대추여울’이라는 뜻을 지닌 ‘조탄’(漕灘)이 있다. 문헌에 따르면 인근에 유려한 대추나무가 있었던 까닭에, 혹은 석양 무렵의 광주천 물결이 대추알처럼 일렁인 데서 비롯됐다고 보인다. 실제 별이 좋은 날, 고운 햇빛을 받은 반짝이는 광주천의 물결은 일렁이는 대추알을 보는 것처럼 따사롭고 아름답다.

광주천을 모티브로 광주천 역사와 기억, 물줄기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기획한 ‘광주천: 대추여울의 시간’이 그것. 오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광주천에 기대어 살아온 빛고을의 오늘과 내일에 초점을 맞췄다. 모두 80여점의 생활사 자료들이 선보이며 문헌 자료 등도 소개된다.

먼저 1부 ‘광주천의 기억’은 광주천 공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지 조명한다. 특히 3·1운동의 진원지였던 지금의 부동교 근처의 작은 장터를 담은 사진은 눈에 띈다. 빛바랜 풍경 속에 광주리를 이고 젓막이를 들쳐업은 아내네와 적삼바지를 걷어 올린 촌부의 모습은 정겹기 그지없다. 주위에 늘어선 난전과 울창한 초가집의 풍경은 시간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역류해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준다.

제2부는 도시 형성의 토대와 맞물린 광주천 역사가 펼쳐진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변화하는 모습이 중심을 이룬다. 고려시대 말 광주천 둔치에 광주읍



1928년 가설된 광주대교를 배경으로 빨래하는 아낙과 물놀이하는 어린이 모습, 도시제사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굴뚝 연기가 이채롭다.



큰잔이 열렸던 광주천의 풍경.

성이 들어선 이래, 지난 600년 시간은 광주천을 중심으로 광주의 지난한 역사가 펼쳐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광주읍성을 건설할 당시 광주천에서 끌어온 물로 방어용 수로(해자)를 채우고 농업용수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유당전서’, ‘증보문헌비고’ 등의 자료가 이를 입증한다.

또한 1920년대 중반 직강화 공사 이후 변화를 맞은 천변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초기의 광주는 광주천 자연제방을 따라 발전했는데 오늘의 충장로, 금남로가 광주천과 평행선을 이루는 것은 그러한 연유다.

광주천의 발원지 용추계곡은 무등산의 남쪽 자락, 지금의

동구 용연동에 자리한다. 이곳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를 일이 없으며, 심한 가뭄에는 기우제를 지냈다고 전해온다. 제3부 ‘광주천 물줄기를 따라서’에서는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용추계곡에서 발원한 하천의 맑고 깨끗한 영상과 물결을 형상화한 구조물을 전시장에서 만나는 것도 이채롭다.

옛 흙다리였던 노지다리를 재현한 구조물을 비롯해 사진으로 광주천 다리를 체험할 수도 있다. 발산마을에서 임동방직공장을 이어주던 뽕방다리, 학동시장과 방립동을 잇는 ‘밋밋교’가 그것이다. 옛 방립동을 ‘밋밋들’이라 부른 데서 연유한 이 다리는 1960년대까지 구멍이 숭숭 뚫린 철판을 이용한 전형적인 뽕방다리였다.

이밖에 아낙들이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던 광주대교 사진도 눈길을 끈다. 1928년에 가설된 광주대교 너머로 당시 도시제사공장(道絲織工場)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묘한 대비와 아울러 낯선 느낌을 환기한다.

제4부 ‘광주천의 오늘과 내일’은 수질 뿐 아니라 서식하는 동물들의 분포 등 광주천의 다양한 면을 생각해 보는 코너다. 광주천 생태도 그려보고 광주천에 대한 단상을 담은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 혹여 광주천이 시민들에게 휴대를 받는 공간이 아닌지 되짚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코로나 주춤 문화 향유객 늘었다 유·스퀘어 문화관 관람객 증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역 문화기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22일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지난해 대비 관람객이 늘었다고 밝혔다.

유·스퀘어 문화관의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 관람객은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지속해서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 대비 같은 기간인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이용객 수치를 분석한 결과 금호아트홀 관람객은 281% 증가한 2392명, 공연 횟수는 68% 증가한 32회로 집계됐다. 금호갤러리 역시 작년 대비 같은 기간인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람객은 236% 증가한 6203명, 전시 횟수는 56% 증가한 92회로 나타났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최근 백신 접종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연, 문화 쪽 이용객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유·스퀘어 문화관은 이용객이 줄어들자 지역 연주자들과 클래식 팬들을 위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나눔 공연을 선보였다. 현재도 유튜브와 팟캐스트(팟빵) 음악채널인 ‘유·스퀘어 클래식’을 통해 금호아트홀과 동산아트홀에서 열린 다양한 장르의 공연 실황을 매주 2~3편 업로드하고 있다. 아울러 다목적 공연장인 동산아트홀을 지역 공연단체들이 연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 ‘블랙리스트와 미투...’ 24일 집담회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는 최근 광주문화예술계에 근절되고 있지 않은 공공예술기관의 검열과 갑질에 대한 집담회 ‘블랙리스트와 미투 이후 - 반복되는 검열과 갑질의 광주예술인’을 24일 오후 1시~5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최한다.

먼저 임인자 소년외의 대표(독립기획자)가 ‘공공예술기관과 검열 1: 아시아문화원의 끝까지 않은 검열’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공공예술기관과 검열 2: 왜 다시, 혹은 지금도 블랙리스트인가?’를 주제로 정은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공공예술기관과 예술가: 광주시립극단의 노동인권침해와 성희롱 사건’은 장도국 프리랜서 배우가 시립극단에서 벌어진 계약직 단원들에 대한 갑질과 성추행 등의 문제부터 이후 대응과정 등에 대해 들려주며 ‘공공예술기관과 실무자: 광주비엔날레 부조리’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사태 전개과정과 공공예술기관의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이슈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좌장 장영진 광주시위원을 중심으로 종합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어진다. 50명 사전예약 필수.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City to City: Play’ 미디어아트작가 모집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온라인 협업 프로젝트 ‘2021 City to City: Play’에 참여할 한국 대표 미디어아트작가(팀)을 모집한다.

‘2021 City to City: Play’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16개국 17개 도시 가운데 14개 도시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다. 광주를 비롯해 14개 도시에서 각 1명씩 14명 작가(팀)이 함께한다.

자격요건은 영여가는 필수로 미디어아트 관련 콘텐츠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창작·제작자 개인 또는 단체다. 마감은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이며 선정된 작가(팀)에게는 창작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프로젝트는 8월부터 11월까지 모두 ‘UCCN 디지털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UCCN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 결과물을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정기회의를 통해 작가들과의 교류자리를 마련된다. 8월에 총4회에 걸쳐 진행되며 선정된 작가들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공학자와 함께 참여한다. 또한 참여작가 14명을 2~3개 팀으로 나눠 주제 ‘Play’에 대한 공동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 오는 11월에 전시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림자’ ‘망중한’...사물과 일상 정갈한 시어로 노래

무안 출신 이창민 시인  
‘멈추니 보인다’ 펴내

이창민 시인은 시집을 낼 때마다 깊은 성찰을 한다. 지난 2016년 첫 작품집을 펴냈을 당시 시인은 “설악은 감의 맛처럼 거세고 텁텁한 맛이 있는 뽕은 색채가 농후하였음”이라고 자신을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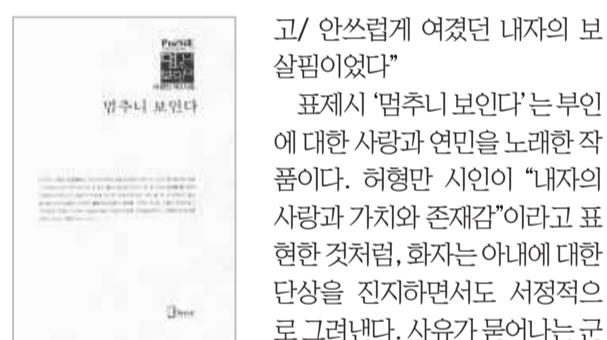
이어 2017년 두 번째 창작집을 내고는 “시가 참 어렵구나, 고뇌하며 시를 시답게 쓰기 위한 치열한 사유의 시간 속을 헤쳐왔다”고 고백했다.

무안에서 은거한다는 의미로 무은(無隱)이라는 호를 쓰

는 그는 깊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작품을 써왔다. 이번이 이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멈추니 보인다’ (리토피아포에지)를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사유와 시의 깊이가 한뼘 더 깊어진 웅숭깊은 세계를 선보인다. ‘그림자’, ‘망중한’, ‘미루상’, ‘화산지 연꽃’, ‘오동나무’ 등 모두 60여 편의 시는 사물과 일상을 시인 특유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들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정갈한 시어와 이면에 드리워진 선비적 사유는 그의 시가 지닌 장점이다.

“흐르다가 고였다가/ 쓰임새 있으면 머무르며/ 마냥 내어 줄 뿐 아까워하지 않는 물처럼// 그것은 없음의 씨앗이 받아와서/ 있음의 열매를 가꾸어 주었던 오랜의 믿음이었



성취로 보인다.

한편 시인은 “아직은 경지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선보인다. 독자들의 기탄없는 질책 기다리며 다음을 기대하는 들뜬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